2002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올해의 고분자학회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4월 12일과 13일의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고분자학회가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다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이기도 해서 서울대학교의 고분자관련 전 교수들은 행사개최 두 달 전부터 조원호 교수님의 주도하에 행사준비를 위한 자체 구수회의를 가지는 등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대학교의 공간사정상 한 장소에서 전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포스터발표는 체육관에서, 총회 및 특별강연은 문화관 대강당에서, 그리고 구두발표는 최근에 완공된 신공학관 302동에서 하는 바람에 학회 참가자들은 본의 아니게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휘젓고 다니면서 다리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공간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심홍구 교수님과 조종수 교수님의 상암상 수상기념 강연을 비롯하여, 8개의 구두발표장에서 특강을 포함한 107편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고, 포스터발표장에서는 49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등록된 회원수도 900여명을 넘어서는 성황리에 학회가 진행되었다. 연구논문발표분야도 고분자 합성, 고분자 구조와 물성, 고분자 블렌드 복합재료, 고분자 가공, 의료용 고분자, 분자전자, 나노구조제어 고분자소재, 신분석기술, 환경고분자, 기능성 고분자, 정보산업용 소재, 그리고 산학연 특별 session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학, 연, 산의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분자 학회회원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최근의 학문과 기술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특히, 나노구조제어 고분자소재 및 정보산업용 소재 등의 일부 구두발표장에서는 좌석이 모자라 많은 회원들이 서서 들으면서도 활기찬 질문을 주고 받는 열기속에 진행되기도 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학회행사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겪게 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했지만 이동에 따른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점 학회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학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황사바람과 쌀쌀해진 기온 탓에 오랜만에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찾으신 회원들께서 캠퍼스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벚꽃과 진달래 등을 만끽할 수 없었던 점은 후기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끝으로 이번 고분자학회의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울대학교 이기준 총장님, 공과대학 이장무 학장님,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 체육교육과의 정철수 학과장님을 비롯한 신현식 체육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학회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회의를 주관하시고 행사비용을 후원하시는 등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 고차구조형 유기재료 연구센터의 조원호 센터장님께도 진심어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각 행사장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온갖 일들을 도맡아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해주신 서울대학교의 고분자전공 대학원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본 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신 학교 직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조직이사 박종래, 서울대학교 학술발표회 준비위원회 조교장 정영규>